

‘기후 및 생태위기를 위한 26개의 살림기도’ 연결자료

## “기후중보기도” 해설



번역, 제공 :  기독교환경교육센터

## 기후정상회의 “COP26”을 위해, 깨어 있는 기도를 올립시다.

기후위기와 COP26을 위한 기후중보기도 자료집 배포에 이어, 기독교환경교육센터 살림이 지속적이고 심화된 기도를 돕는 내용을 추가로 번역하여 전달합니다. 총 80번까지 행되는데, 1차로 배포했던 ‘26가지의 기후중보기도문’ 자료집(작성 영국 성공회, 번역제공 기독교환경교육센터 살림)에 대한 상세한 상황 설명과 기도 내용이 담겨 있어 기도를 깊이 들어가게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순서대로 읽으면서 기도하되, 각각의 글 다음에는 침묵의 기도의 시간을 가질 것을 권합니다. 그리고 함께 하는 신앙공동체와 더불어 기도회로 모여 깨어 기도하게 되길 소망해봅니다.

혹 배포된 26가지의 기도문을 자료로 받아보기 원하는 분은 다음 링크 (<https://bit.ly/2U81H4E>기후기도)로 신청해주시면 확인하는 대로 바로 전송합니다. 아울러 10월말 기후중보기도회에도 함께 하시게 되길 기대해봅니다.

<지구복원10년을 향한 살림교육행동 자료팀>

창조주 하나님, 이 땅은 신비하고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기후 변화의 도전들에 직면함에 따라 우리의 혼란과 행동하지 않음을 용서하소서.

예수의 삶과 가르침에서 분명히 나타난, 당신의 진리의 빛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그리고 우리의 생활방식의 선택들을 돌아보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모습이 이 땅위에 생명을 지탱하는 모든 만물들에 어떠한 함의를 갖는가를 분명히 보도록 도와주소서. 우리가 당신이 만드시고 사랑하시는 이 소중한 세상의 모든 측면을 돌보는 데에 있어서 당신의 이끌어주심을 따라가게 하소서.

우리는 미래 세대들을 위하여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부터 우리의 세상을 보호하는 데에 도움이 될 올해 11월 글래스고에서의 급진적 행동들에 세계의 지도자들이 동의하기를 기도합니다.

역사 속에서 당신은 사람들이 그들의 이웃을 위해 놀라운 일을 행하도록 움직여 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에서 우선순위를 변화시키고 함께 일하도록 영감을 불어 넣어 주소서, 그래서 우리가 당신의 모든 창조세계를 위하여 공정하고 안전한 세상을 세울 수 있게 하소서 ; 그 세상은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같이 이루어지는 세상일 것입니다. 아멘

### 1. 유엔 기후 회담을 위한 기도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26)는 글래스고에서 2021년 이번 11월에 열립니다.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를 위한 네 가지 핵심 목표들이 있고 우리는 이 깨어 있는 기도 동안에 이들 각각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그 목표들은 국가들이 더욱 담대한 기후 계획들을 제공하는 것, 환경 보호를 위한 적응 조치들을 제공하는 것, 더 가난한 나라들을 지원하는 데에 재정적으로 동의하는 것, 그들의 미래 협력을 안내해 줄 규정 책자에 동의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우리는 협상자들과 외교관들이 현재 진행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에 있어서 결단력을 가지고 하나가 되고, 또한 뜻을 합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데 집중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 정상 회담의 준비 작업들을 위해 그리고 열릴 예정인 모든 회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국가의 정책들을 형성하는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그들에게 전망과 담대한 야심을 주소서.

### 2. 예레미야 17:7-8

“그러나 주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뿌리를 개울가로 뻗으니, 잎이 언제나 푸르므로, 무더위가 닥쳐와도 걱정이 없고, 가뭄이 심해도, 걱정이 없다. 그 나무는 언제나 열매를 맺는다.” (표준새번역)

### 3. 성자들의 증언

우리는 잘 알려진 그리고 잘 알려지지 않는 성자들 모두로부터 영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 그들은 수 세기에 걸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들의 증언의 일부로서,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돌본 성자들입니다.

우리는 聖 콜롬바를 기억합니다. 그는 수도사로서 소박하게 살았고, 바다의 물결이 “세상의 모습을 바라보고 그 물결의 아버지에게 음악을 노래하는” 방식과 같은 것들을 기뻐했습니다. 그는 상처받은 동물들을 환대하며 돌보았고 나무를 베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대수녀원장인 빙엔의 힐데가르드는 기도, 노동, 배움 그리고 휴식이 균형 잡힌 삶을 추구했습니다. 창조세계가 창조주의 선함과 힘찬 사랑을 드러내는 모습에 매혹되어, 그녀는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모든 살아 있는 피조물들은, 말하자면, 하나님의 찬란

한 빛으로부터 나오는 불꽃들이고, 이 불꽃들은 마치 태양에서 빛이 나오듯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인간과 창조세계의 다른 부분과의 복잡한 상호관계를 의식하고, 힐데가르드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모든 창조세계를 하나님은 인간에게 사용하도록 주신다. 만약 이 특권이 잘못 사용된다면, 하나님의 정의는 창조세계가 인간을 벌하도록 허락하신다.”

우리는 이러한 성자들의 영감과 증언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 4. 현 상황을 뒤집기

이 영광스런 창조세계는 몇 가지 임박한 기후 전환점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미래는 불확실한 상태에 있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서 기후 과학자들에 의해 연구되고 보고된 위기 시나리오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세계 지도자들과 정책 입안들에게는, 지구화의 시장 세력들과 경제적 발전이 모든 다른 것에 대해 우선순위를 차지합니다. 이것은 전례가 없는 시대이며 - 우리는 모두 응답하도록 부름 받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안의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그는 모든 것들을 주의 깊게 돌아 보셨습니다. (마가복음 11:11) 그는 어떻게 응답할지를 숙고했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아버지의 집이 사용되는 모습에 대해 예수가 어떻게 생각하고 의로운 분노를 드러냈는지에 대해 알 수 있는 통찰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는 일이, 가난한 자들을 해롭게 한 잘못된 관행들에 의해 훼손되고 있었다는 것은 명백했습니다. 그 다음 날 상인들과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뒤집어엮고 그들을 성전으로부터 몰아내시며 극적으로 개입한 예수의 행동은 아무에게도 직접적으로 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행동은 엄청난 소란을 초래했고 수년에 걸쳐서 쌓여왔었던 관행에 모든 사람들이 공모하고 있음을 깨닫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역시, ‘흔히 이루어지는 사업’이 우리 자신을 위한 그리고 더욱 중요하게는 미래 세대들을 위한 안전한 미래와 양립할 수 없는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도 역시 우리가 ‘정상’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을 ‘뒤집어엮고’ 그리고 우리의 지도자들이 기후 행동과 응답을 우선시할 것을 요구해야 할 시간입니다. 우리가 개인들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합시다. 그리고 글래스고에서 이루어질 중요한 결정들을 위해 기도함으로 시작합시다. - 상이 뒤집어엮어지도록 그리고 기후 영향을 완화시킬 새롭고, 심오하게 효과적인 방법들이 실현되도록, 더 가난한 나라들이 지원받고 그리고 기후 정의가 더욱 용이하게 이루어지도록 합시다.

## 5. 기후 변화로 인한 해양의 온난화

온실 가스 배출이 오늘날의 수준에서 멈춰지더라도 해양은 수세기 동안 계속해서 온난화될 것이라고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전 지구적으로 온실 가스의 상승에 의해 초래되는 과도한 열의 93%가 해양들에 의해 이제 흡수되어 왔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해양의 온난화는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상승하는 기온은 해양 생물의 모든 종류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그리고 산호의 탈색으로 귀결됩니다.

온도가 올라간 바다는 또한 해수면 상승을 의미하고 심각한 태풍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 6. 기후 영향은 생명을 근본적으로 재형성할 것입니다.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 (IPCC)이 작성한 새로운 보고서는 어떻게 기후 영향이 다가오는 수십 년에 걸쳐서 생명을 근본적으로 재형성할지에 대한 냉정한 모습을 제시하며, 즉각적인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줍니다.

그 보고서는 기후 영향에, 그리고 기후 변화에 대한 적응과 취약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것은 네 가지 핵심 요지들을 제시합니다.

첫째, 지구를 변화시키는 기후 변화는 예상되었던 것보다 훨씬 더 일찍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세계 기상 조직은 앞으로 이르게 2026년도에는, 온난화가 1.5도를 넘어서는 가능성이 1년에 40%가 있다고 말해 왔습니다. 1.5도를 넘어서는 온난화가 지속되면, 그 보고서는, “점진적으로 심각한, 수세기에 걸쳐 오래 가는 그리고 어떤 경우들엔 회복될 수 없는 결과들”을 낳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둘째, 적응을 위한 계획은 전혀 적절하지 않습니다. 수십 년 안에, 석탄을 사용하는 도시들은 수백만 명이 위기에 처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만약 온난화가 2도를 기록하면 4억 1천만 명의 도시 거주자들이 가뭄 때문에 물 부족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굶주림에 대한 위험 역시 증가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변화들에 대해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 그리고 우리는 특히 가장 취약한 이들을 위한 보호를 확실하게 하면서, 지금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셋째, 과학자들은 지구 온난화가 지구의 자연 체계들에 전환점을 초래할 것을, 그래서

그 시점에는 작은 변화가 어느 한 지구체계로 하여금 역치 (한계점)를 넘어서게 만들고, 이는 더 큰 변화들이 쏟아지는 데에 이를 것을 더욱 더 염려하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패널이 수행한 이전의 작업은 전환점들을 고려하지 못한 것으로 비판되었습니다. 이 보고에서, 기후 과학자 사이먼 루이스는 다음과 같이 주목하였습니다. :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패널로부터의 극명한 메시지는 점차적으로 심각한 폭염, 화재, 홍수 그리고 가뭄이 많은 나라들에 대해 긴급한 영향들을 초래하며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뿐만 아니라 어떤 회복될 수 없는 변화들, 종종 전환점들이라 불리는 변화들이 있는데 이들은 예컨대 이상 고온과 가뭄이 계속된다면 아마존 열대우림의 일부가 지속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넷째 요점은 우리에게 대한 부름입니다. 인간에 대한 위협을 주목하고는 - “지구 위의 생명은 새로운 종들로 진화해 감으로써 그리고 새로운 생태계들을 만들어냄으로써 급격한 기후전환으로부터 회복할 수 있다 ... 그러나 인간은 그렇게 할 수 없다.” - 그 보고서는 변혁에 가까운 변화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제는 우리의 사회들이 그러한 변화들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 문제는 그 사회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변화들 자체는 정치적 의지를 감안하면 가능합니다, 우리가, 개인들로서, 우리 자신들이 취할 수 있는 모든 행동들에 착수하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 세계의 사람들로 하여금 그 보고서가 제시하는 위협들을 피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들로부터 행동을 요구하도록 인도하시기를 기도하십시오.

## 7. 통찰의 선물

주여, 당신은 우리에게 당신의 창조세계의 의미를 그리고 그것을 돌보는 우리의 책임을 이해할 통찰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는 눈을 주셨고, 그리고 다른 생명들과 그들의 필요들을 이해하는 공감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주여, 우리가 당신의 창조세계를 돌보지 않는 것을 용서해 주소서. 우리가 당신의 작품인 창조세계의 지배자가 되려고 한 것을 용서주소서.

우리의 이웃의 필요들에 대한 우리의 내면의 눈이 멈과 귀 먹음을 용서주소서. (재클린 라일)

## 8. 부활

창조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우리는 당신의 아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우신 것을 압니다.  
그 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계셨기 때문이지요.

창조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우리가 당신의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바라보며 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기 때문에 읍니다.

이 세상에 가하는 우리의 폭력을 뱉니다.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우리의 어리석고 분별없는 소비주의에 읍니다.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제한받지 않는 자본주의를 응시하며 읍니다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나라를 꿈꾸었습니다.  
대안적인 공동체를 위한 대안적인 현실.  
그리고 그는 이 공동체가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버려진 자를 환영함으로  
불의의 탄자를 뒤집어엮으셨고  
자신을 내어주는 희생적 사랑의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우리 역시 다른 나라를 꿈꾸게 하소서,  
우리도 역시 부활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폭력, 악, 그리고 파괴가 최후의 승리자가 아닐 것임을 보여주는,  
제한받지 않은 자본주의와 착취의 제국들이 최후의 승리자가 아닐 것임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보좌에 앉으신 분에게 그리고 어린 양에게  
모든 찬양, 영예 그리고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존 스웨일즈 목사)



## 9. 남극대륙에서의 연구 결과들

산업 혁명 이후로 평균 지구의 기온은 0.8도 상승했지만, 극지방에서 온난화는 훨씬 더 높았습니다. 극지방에서는 평균 기온이 섭씨 2도 혹은 3도 상승해 왔습니다.

미국 럿거스(Rutgers University) 대학의 과학자들은 남극대륙에서 어떻게 지구 온난화가 먹이사슬을 변화시키고 있는지를 연구해 왔습니다. 플랑크톤의 배분이 변화하였습니다. 아델리 펭귄의 숫자는 감소하였습니다. 높은 바람은 해양 안에 더 깊은 물살들을 휘저어 일으키고, 해양은 이산화탄소를 내뿜으며 더 많은 온난화로 이어집니다. 오랜 기간 유지되어 온 월킨스 빙봉의 넓은 부분들이 해양 안으로 떨어지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대륙 빙하에서 극단적인 날씨와 기술적 어려움들과 싸우면서 기후를 조사해온 과학자들이 수집한 연구 결과들이 실제로 가치 있는 것으로 드러나기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이 연구 결과들을 사람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그에 따라 행동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십시오.

## 10. 프란시스 교황의 ‘찬미 받으소서’로부터의 기도

우리의 삶을 치유해 주소서,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약탈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보호하게 하소서, 우리가 오염과 파괴가 아닌 아름다움을 씨 뿌리게 하소서.

가난한 자들과 지구를 희생해서 단지 이익만을 얻으려는 자들의 마음을 만져 주소서. 우리가 당신의 무한한 빛을 향하여 걸어갈 때에, 만물들 각각의 가치를 발견하도록 가르쳐 주소서, 우리가 모든 피조물들과 심오하게 하나 됨을 깨닫고, 우리가 경외와 명상으로 가득 차도록 가르쳐 주소서.

우리는 당신이 매일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정의, 사랑, 평화를 위한 우리의 투쟁에서 힘을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합니다.

## 11. 시편 96:11-13

하늘은 즐거워하고, 땅은 기뻐 외치며,  
바다와 거기에 가득 찬 것들도  
다 크게 외쳐라

들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도  
다 기뻐하며 뛰어라.  
그러면 숲 속의 나무들도 모두  
즐거이 노래할 것이다.  
주님이 오실 것이니,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니  
숲 속의 나무들도  
주님 앞에서 즐거이 노래할 것이다.  
주님은 정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며,  
진리로 못 백성을 판결하실 것이다.

## 12. 전 지구의 기후 상태

2020년 세계기상기구(WMO)의 보고 서문에서, 유엔 사무총장 안토니오 구테레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2020년은 지구와 사람들 모두에게 전례 없는 해입니다: 한 세기 이상 본 적이 없는 규모의 전 지구적인 유행병이 있었습니다. 천 년 안에 있었던 것보다도 더 높은 지구적 기온이 나타났고, 3백만 년 넘는 기간 동안 우리의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의 가장 높은 집중이 있었습니다.

... 이 보고서는 전 세계에 걸쳐서 많은 사람들 특히 개발도상국들의 많은 사람들에게 대해 2020년이 기후 변화에 의해 초래된 극단적인 기상과 기후 혼란의 해였고, 많은 생명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생계를 어렵게 하며 수백만의 사람들이 집을 떠나 이주하게 만든 해였음을 설명합니다 ... 우리는 지금 그리고 미래에 배출을 줄이고 기후 영향에 적응하기 위해 무엇이 행해져야 하는가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공할 기술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후변화 해결의 의지와 행동의 현재 수준들은 요구되는 것에 비해 대단히 부족합니다.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에서 우리는 완화(감축)와 적응에 대해 담대한 행동을 취하고 계획하고 있음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 정부, 시민 사회, 기업으로부터 개개인 시민들에 이르기까지 - 2021년이 의미 있는 해가 되도록 함께 일할 것을 요청합니다.“ (유엔 사무총장 안토니오 구테레스)

## 13.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 첫째 목표

COP26의 첫째 목표는 2050년까지 전 지구적 탄소중립(net zero)을 확보하고 그리고

1.5도를 도달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나라들이 이번 세기 중반까지 탄소중립에 도달하기 위하여 야심적인 2030 배출 저감 목표를 제출하도록 요청받고 있습니다. 이 도전적인 목표들을 이루기 위해서 각 나라들은 화석 연료 사용을 줄이고 재생 가능한 자원들과 전기차에 대한 투자를 늘리며, 산림파괴를 급격히 줄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적절한 결단을 하지 않은 모든 나라들 - 특히 주요 배출국가들 - 로부터 많은 야심찬 계획이 나오기를 절박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마음가짐의 변화를 - 그리고 잠재적으로는 상당히 어느 정도의 협상을 요구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지도자들이 이 목표의 필수적인 중요성을 이해하고 미래의 행동을 단지 약속하기보다는, 진실하고 구체적인 결단을 행하기를 기도합니다.

#### 14. 전통적인 유대교의 기도

오 주님, 당신의 손으로 만드신 작품들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하늘은 당신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 둥근 하늘은 당신의 솜씨를 드러냅니다. 당신의 사랑 안에서, 모든 영광 안에 감싸인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는 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해와 별들, 계곡들과 언덕들, 강들과 호수들은 모두 당신의 존재를 드러냅니다. 바다의 포효하는 파도는 당신의 경이로운 힘을 말해줍니다. 들의 짐승들과 공중의 새들은 당신의 놀라운 뜻을 전해 줍니다.

당신의 선함 안에서 당신은 우리가 세상의 음악을 들을 수 있게 만들어내셨습니다. 당신은 우리 가운데에 계십니다. 거룩한 목소리는 모든 피조세계에 걸쳐서 노래합니다.

#### 15. 산호에 대한 영향

대기 중에서도와 같이, 바다의 기온도 지구의 온난화 때문에 점차 상승하고 있습니다. 해양의 거대한 크기 때문에 해양의 온도가 상승하는 것은 매우 느리지만, 그러나 또한 온도가 낮아지는 것도 매우 느릴 것입니다. 탄소 배출이 급격히 감소되더라도, 대기 온도는 해양들 안에 담긴 온기 때문에 계속 상승할 것입니다.

산호초들은 수백 가지 산호 종들이 번성할 수 있게 하며, 물고기와 모든 종류의 해양 생물들에 대해 놀랍도록 다양한 생태계를 제공합니다. 산호초들은 또한 해안선을 보호합니다. 그러나 산호초 종들은 상승하는 기온에 매우 예민합니다. 산호가 더 높아진

기온에 영향 받게 되면, 탈색(산호 안에 사는 조류의 손실 때문에)이 일어납니다. 빨리 온도가 낮아지지 않으면 산호는 죽습니다. 산호가 심각한 탈색으로부터 회복하는 데에는 30년이 넘게 걸립니다.

우리는 전 세계에 있는 해양 과학자들이 산호와 그밖에 다른 해양 생물에 대한 위협을 일깨워 주므로 그 해양 과학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해안선들에 대한 책임을 지닌 세계 각국의 정부 지도자들이 해양 생물을 보호하기 위해 행동해야 한다는 긴급한 필요에 응답하기를 기도합니다. 해양의 생태적 온전함에 대하여 수많은 경고 표시들이 간과되고 있습니다.

#### 16. 우리가 여행을 잘 하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당신이 이 땅위에서 살며 걸었을 때  
당신은 당신과 함께 여행할 제자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당신은 부르십니다.  
영원한 길, 진리와 생명의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우리에게 따르라고 초청하시고 계십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이 위험한 시대에  
우리가 여행의 길을 잘 가도록 도와주소서.  
매일 당신의 작품인 이 세상을 소중히 여기며  
당신의 사랑과 힘으로 지탱되는 세상과 그리고 각자를 돌보면서  
그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CCOW)

#### 17. 플라스틱 오염

코로나19는 많은 부정적인 영향들을 초래하였습니다.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는 플라스틱 오염입니다. 즉, 쓰고 버리는 개인 보호장비 제품과 일회용 얼굴 마스크 등 모두의 결과로 생겨난 주요 문제입니다.

런던 대학의 과학자들은 영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1년 동안 매일 일회용 마스크를 사용한다면 66,000톤이 넘는 오염된 쓰레기가 영국에서 매년 발생될 수 있는데, 이는 재사용 가능한 마스크를 사용함으로 인해 발생될 기후 변화 영향의 10배라고 평가합니다.

일반적인 위험들뿐만 아니라 마스크는 또한 바다의 새들에게 구체적인 위협을 가하는데, 바다 새들은 고무줄에 걸려 얽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회용이 아닌 재사용할 수 있는 마스크를 쓰는 것은 가능하며, 그것으로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환경 모두를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을 찾아 행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18. 잃어버린 10년

작년도에 데이빗 아텐보로가 제작한 멸종에 대한 BBC 프로그램은 우리가 행동해야 한다는 긴급한 필요에 대해 강력하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은 생물 다양성에 대한 유엔 협약 보고서 출판과 동시에 제작되었습니다. 그 보고서는 전 지구적으로, 생물 다양성 목표들의 단 한 가지도 2020년까지 이루어지지 못할 것임을 드러냈습니다. 그 보고서는 각 나라별 수준의 분석을 포함하지는 않았고 그래서 왕립조류보호협회(RSPB; Royal Society for the Protection of Birds)는 영국 정부의 진전을 평가하는 자체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이것은 영국이 이 국제 목표들 중에서 단지 세 가지만 실제로 충족했고 여섯 가지 분야들에서는 퇴보했음을 보여줍니다.

협회(RSPB)의 마틴 하퍼는 “우리가 도달한 명확한 결론은 우리의 현재의 접근이 비참할 정도로 부적절하다는 것이다”라고 썼습니다. 그 단체는 영국 전역에서 자연을 회복하기 위해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목표들을 추진하는 캠페인을 이제 시작했습니다.

## 19. 노아 작전 기도

창조주 하나님, 당신의 솜씨는 얼마나 깊은지요!  
당신은 살아 있는 땅, 구름, 비, 바람을 만들어내셨고,  
우리에게 그들을 돌보라고 맡기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기후, 바다, 생명의 균형을 변화시키고 있음을,  
가난한 자들과 다음세대의 것을 빼앗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을 모든 피조물을 위한 방주로 세워 주소서.  
그리고 당신이 결코 홍수를 다시 일으키지 않겠다고 노아에게 약속하셨듯이,  
우리를 새로운 무지개 계약의 전령으로 만들어주소서.  
위험에 처한 모든 것들,

곧 피조세계, 가까운 곳과 먼 곳의 이웃들,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 자신들을 위해  
생명을 택하는 전령으로 만들어주소서.  
아멘

## 20. 위험에 처한 숲들

한 보고서는 2019년 동안 매 6초마다(이는 이 구절을 타이핑하는 데에 걸리는 대략의 시간) 지구상에서 축구 경기장만한 열대림이 사라져가고 있음을 설명합니다. 380만 헥타르라는 전체 소실과 연관된 배출은 1년 동안 4억 대의 차를 운행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또한 그것만이 유일한 영향은 아닙니다. 산림 소실은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는

열대림의 파괴를 안타까워하고, 산림 소실을 줄이기 위해 애쓰는, 투자자 이니셔티브(파리기후협약 달성을 위해 2017년 결성된 글로벌 조치, Climate Action 100+)와 국가적 지원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아마존을 보호하려는 브라질 주 정부들의 노력을 포함한 모든 조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한 정책 개선이 긍정적인 변화에 이르고 있는 인도네시아와 같은 나라들의 애씀에도 감사드립니다.

## 21. 찬미 받으소서.

프란시스 교황의 회칙 (encyclical) ‘찬미 받으소서.’ 에서 교황은 다음 사항을 주목합니다. “성 프란시스는 성서에 신실한 분으로서, 우리로 하여금 자연을 장엄한 책으로 보도록 초대합니다, 그 책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의 무한한 아름다움과 선함의 한 면을 보도록 해줍니다.” 그 후에 그는 심오한 도전을 제시합니다. “담대한 결정을 요청하는 깊은 위기의 시기들에 매우 종종 그러하듯이, 우리는 지금 일어나는 일이 전혀 명확하지 않다고 생각하도록 유혹받습니다. 그러한 회피하는 마음이 우리의 현재의 생활양식들과 생산 및 소비 모델들을 계속 유지하는 면허처럼 작용합니다. 이것이 곧 인간이 자신을 파괴하는 악을 계속 키우기 위해 고안해내는 방식입니다: 그 악행을 보지 않으려 하고, 인정하지 않으려 하며, 중요한 결정들을 미루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속입니다.

## 22. 우리의 지구가 울부짖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구가 울부짖고 있습니다.

북극의 빙하와 영구 동토층이 녹으면서 대기권으로 분출되는 온실가스가 마치 지구가 쏟아내는 눈물과 같습니다. 메탄가스라는 눈물입니다.

우리가 그 울부짖음에 응답함으로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시대가 빨리 오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산업이 대기 중으로부터 내뿜는 온실가스를 없애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서, 북극해와 영구 동토층의 온도가 내려가고, 지구의 눈물이 마르도록 기도해주십시오. (조프리 F J 화이트)

### 23. 아이들에게서의 생태적 불안

영국의 바스 대학교의 심리치료자인 캐롤라인 혁맨은 기후가 불안정해짐에 따라 ‘생태-불안’이 점차 많은 수의 아동들과 젊은이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녀의 연구는 영국과 몰디브의 아동들과 대화한 내용에 근거해 있습니다. 그녀는 또한 영국에 있는 기후심리 연합과 함께 학교에서 워크숍을 진행하는데, 그 워크숍에서 젊은이들은 기후 및 생태 위기에 대한 염려들을 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캐롤라인은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기후 변화에 대해 아이들과 이야기해 보면 기후 위기에 대해 어른들과 정치가들이 거의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부조리한지에 대해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정치가들이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다르다는 문제를 잘 보여줍니다... 정치가들의 깨어진 약속들과 행동하지 않음은 기후 위기의 거대함과 결합되어 아이들의 정신 건강에 피해를 끼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또한 덧붙입니다. : “젊은이들이 기후 변화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들에게 귀 기울이기 위해, 우리는 모두 더 많이 행동해야 합니다. 젊은이들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모두 어떻게 혼란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사과하며 행동하기 시작해야 할지에 대해 더 많이 배울 것입니다.” 그녀는 긴급한 변화를 촉구하는 젊은 목소리들이 전 세계의 정치인들에게 마치 시위하는 듯한 외침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기후 변화에 대해 느끼는 거룩한 부담감에, 우리가 더욱 민감해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염려가 실제적이고 긍정적인 변화를 위한 자극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 24. 역대하 7:14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며,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

#### 25. 크리스 폴힐의 시

주여, 우리를 용서 하소서,  
우리가 생각 없이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을,  
문을 열고 난방을 하는 것,  
빈 방에 전등을 켜놓는 것,  
두터운 티셔츠를 입고 시원하게 냉방하는 것,  
이렇게 에너지를 낭비하는 우리를 용서하소서.  
우리의 생각 없는 낭비를 용서하소서.

바람이 새는 창문과 출입문의 틈새를 그대로 두고  
기밀을 높이지 않거나  
건물의 단열 또한 높이지 않는,  
우리의 생각 없는 낭비를 용서 하소서.

석유를 게걸스럽게 먹어치우는 차들,  
작은 여행에도 차를 운전하고,  
더 값싼 요금의 비행기를 찾는,  
우리의 생각 없는 낭비를 용서 하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맑은 생각, 바른 행동 그리고 온화한 생활방식을 주소서.  
아멘.

#### 26. 육류 생산

육류 생산은 같은 양의 단백질을 생산하기 위해 곡물이나 콩보다 훨씬 더 많은 땅과 물을 필요로 합니다. 소와 다른 가축은 ‘온실 가스’ 메탄의 상당한 양을 배출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마존 열대 우림의 많은 부분이 계속 파괴되는 것은 소 방목을 위해



땅을 깨끗하게 밀어버리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의 식사에서 고기를 덜 먹도록 노력할 수 있습니다. 영국 성공회 런던 교구의 리차드 샤프트르 주교는 가축을 집약적으로 사육하는 방식이 여러 위험한 환경적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깨달았기에 5-6년 전에 고기 먹는 것을 포기하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설교하기보다는, 그는 그 자신의 생활방식을 검토하여 새로운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는 “금식과 축제의 삶은 즐거운 것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1주일에 하루 혹은 그 이상 고기를 먹지 않고 금식할 수 있을까요? - 혹은 아예 1주일 내내 가능할까요?

27. 모든 피조물 중에 처음 나신 분

오 그리스도여,  
모든 피조물 중에 처음 나신 분  
당신을 통해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고  
당신의 숨결이 만물에 생명을 주었습니다.  
당신의 계약은 노아와 모든 만물을 포함하였고  
당신의 거처를 물질 안에 두고자 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육체가 되셨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피조세계로 하여금 자신의 운명을 성취하게 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소서  
당신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  
당신을 찬양하고 영원히 당신을 높이기 위해.  
아멘 (닉 리드 목사)

28. 우리가 해결의 일부입니다.

전 지구적으로, 모든 동물과 식물 종의 약 25%가 멸종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생물 다양성을 위한 국제 기념일은 생물다양성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인 생물다양성의 손실에 대해 의식을 일깨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제 기념일의 조직자들은 작년에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습니다. “지구의 공동체가 자연세계에 대한 관계를 재검토하도록 요청받고 있음에 따라, 한 가지가 분명합니다. : 우리의 모든 기술적 진보들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건강, 물, 식량, 약, 옷, 연료, 주거지 그리고 에너지 (이러한 것들은 단지 몇 가지 예만 말한 것입니다)를 위해 건강하고 활기찬 생

태계에 완전히 의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20년의 표어인 “우리가 해결의 일부입니다”는 “생물다양성이 몇 가지 지속가능한 발전 도전들에 대한 대담으로 남아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자연에-기초된 해결들로부터 기후, 건강 이슈들, 식량과 물의 안전 그리고 지속가능한 생계에 이르기까지, 생물다양성은 우리가 다시 돌아와 더 잘 세울 수 있는 토대입니다.”

세계의 지도자들은 인간과 지구상의 모든 생명의 이익을 위해 생물다양성 손실의 ‘곡선을 구부러뜨릴’ 지구적 프레임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 번(2022년 5월 즈음)에 개최될 유엔 생물다양성 정상회의를 향해 모두가 함께 작업하도록,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나오는 효과적인 행동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주께서 손수 만드신 것이, 어찌 이리도 많습니까? 이 모든 것을 주께서 지혜로 만드셨으니, 땅에는 주님이 지으신 것으로 가득합니다.” (시편 104:24)

## 29.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시여,

당신과 떨어져서는, 우리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키소서.

병든 자들에게 치유를, 눌린 자들에게 자유를

그리고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가져오도록

당신의 힘을 보내주소서.

당신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 주소서

우리를 연민으로 채워 주소서,

그래서 집 없는 자들과 굶주린 자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게 하소서

그리고 고아들, 과부들, 노인들을 당신의 돌봄으로 감싸게 하소서.

우리가 오늘 직면한 복잡한 문제들에 대해

지혜와 통찰을 우리에게 주소서.

만물의 온전한 행복을 위해

지구의 자원들을 사용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소서.

성령이여, 우리는 당신의 위로와 인도하심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소서.

(지구 기도의 날, 아일랜드 변혁)

## 30.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둘째 목표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둘째 목표는 ‘공동체들과 자연 서식지들을 보호하기 위해 적응하는 것’입니다. 기후는 이미 변화하고 있으며 우리가 지금 탄소배출을 줄이더라도, 황폐한 결과들을 낳으며 계속 변화할 것입니다.

우리는 각 국가들이 기후 변화에 의해 영향 받은 나라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도록 효과적으로 함께 일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들이 생태계를 보호하고 회복하며 미래에 집, 생계 그리고 심지어 생명의 손실을 피할 수 있도록 방어, 경고 체계, 탄력적인 하부구조 그리고 농업을 세워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 31. 아빌라의 성 테레사의 기도

그리스도는 이제 몸이 없습니다. 당신의 몸밖에는.  
 그분은 손도 발도 없습니다. 당신의 손과 발밖에는.  
 그분은 당신의 눈을 통하여 이 세상을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당신의 발로 세상을 다니시면 선을 행하십니다.  
 당신의 손으로 지금 우리를 축복하고 계십니다.

## 32. 전환기에 있는 농업

모든 지역의 농업은 전환기에 있습니다. 산업은 전례 없는 도전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 기후 변화와 전 세계에 유행하고 있는 감염병, 지속적인 자원의 상실, 그리고 생물다양성의 감소로부터의 도전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들 각각은 그 자체로 위기입니다.

동시에 영국은 다른 곳과 달리 다른 정책과 실천의 전개를 요구하는 브렉시트의 복잡성과 기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업은 다양한 견해들과 이해관계를 지닌 서로 다른 많은 행위자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농부들의 민감한 환경적 경영에서는 그 농부들을 지원하는 새로운 조치들이 핵심입니다. - 다만 그것들이 전개되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는 영국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정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식량 생산과 재생 산업, 자연의 회복뿐 아니라 복원을 위하여 전진하며 길을 헤쳐 나갈 때에 지혜와 지도력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33. 욥기 38:4, 16, 18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거기에 있더라도 하였느냐? 네가 것처럼 많이 알면 내 물음에 대답해 보아라... 바다 속 깊은 곳에 있는 물 근원에까지 들어가 보았느냐? 그 밑바닥 깊은 곳을 거닐어 본 일이 있느냐? ... 세상이 얼마나 큰지 짐작이나 할 수 있겠느냐?”

34. 우리의 지구를 위한 기도 (찬미 받으소서)

6년 전에 프란시스 교황은 ‘찬미 받으소서’를 출판하였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계에 대한 염려와 그리고 기후 변화의 영향을 마음에 깊이 새기도록 하는 청원입니다. 그 책에 실려 있는 기도를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

전능하신 하나님,

당신은 전체 우주 안에 계시고 당신의 피조물들 중에서 가장 작은 것 안에도 계십니다. 당신은 존재하는 모든 것을 부드럽게 감싸 안으십니다.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의 힘을 부어주소서. 그래서 우리가 생명과 아름다움을 보호할 수 있게 도와주소서.

우리에게 평화를 더하여 주소서.

그래서 우리가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는 형제자매로 살게 하소서.

오, 가난한 자들의 하나님,

우리가 당신이 보시기에 너무도 소중한,

이 땅의 버려진 자들과 잊혀진 자들을 구하도록 도와주소서.

우리의 삶을 치유하여 주소서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약탈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고,

오염과 파괴가 아닌 아름다움의 씨앗을 뿌릴 수 있게 도와주소서

가난한 자들과 지구를 희생시키며 자신의 이익만을 구하는 자들의 마음을 만져주소서.

우리가 생명 하나하나의 가치를 발견하면서,

경외심으로 당신의 무한한 빛을 향한 영적 여정을 걷게 도와주소서.

당신의 모든 창조물과 하나로 연결되어 살 수 있게 도와주소서.

우리가 날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용기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의, 사랑 그리고 평화를 위한 걸음에 힘을 더하소서.  
아멘

### 35. 탄소 배출 줄이기

현재의 유엔의 협의 과정은 각 나라들에게 목표치를 부과하지 않고, 자발적인 접근에 의존합니다. 그럼으로써 각 나라는 자발적인 탄소배출 감축 목표를 제시하였습니다.  
- 이것이 ‘국가자발적기여(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NDCs)’입니다. 이론상으로는 모든 기여 부분은 과학이 지구 온난화를 ‘안전한’ 수준 안에 유지하도록 요구하는 감축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부분이 아직 충분히 의미 있게 진행되지 않고 있어서, 파리에서 합의된 과정이 너무도 적은 그리고 너무도 늦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염려가 큼니다. 우리는 이 일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배출 감축이 공정하게 분배되고 온난화를 2도 아래로 유지하고자 하는 목표를 잘 달성할 수 있도록 충분히 의미 있게 그리고 확실하게 움직이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가 약속한 대로 즉각적이고 가시적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 36. 예레미야 17:10

“각 사람의 마음을 살피고, 심장을 감찰하며, 각 사람의 행실과 행동에 따라 보상하는 이는 바로 나 주다.”

### 37. 사이클론 (열대성 저기압)의 영향

2020년 북반구에서 일어난 강도 4~5의 허리케인과 사이클론의 횡수가 모든 기록을 깼습니다. 대서양 분지에서 일어난 30개의 열대성 폭풍은 그곳의 이름으로 지었었는데, 이 가운데에는 카리브 해와 멕시코 만 그리고 대서양 분지에 주요한 영향을 끼친 허리케인 에타, 로타, 그리고 로라가 있습니다. 이들은 전 지구적 유행병의 영향 때문에 훨씬 더 악화된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러한 폭풍 피해의 어느 것 하나도 지구 온난화의 직접적인 결과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과학자들은 상승하는 바다의 온도가 바람의 속도와 강우의 측면 모두에서 열대성 저기압의 심각성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뜨거워진 공기는 비로 내릴 수 있는 더 많은 수분을 포함하게 되고, 이는 강한 바람과 함께 더 거센 비를 내리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피해를 낳는 폭풍의 피해자들이 부서진 삶의 터전을 다시 세우고자 애쓸 때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한 폭풍 피해를 경험하기 쉬운 모든 나라들의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특히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위하여, 조기 경보 체계와 재난 대비에 훨씬 더 큰 중점을 두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38. 순례의 기도

주님, 당신은 당신의 길을 따르도록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당신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의 발걸음을 따르기를 갈망합니다.

땅의 창조하신 주여,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가벼운 걸음으로 살게 도와소서.  
당신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세상을 귀하게 여기며,  
서로가 서로를 지키고 돌볼 수 있게 도와소서.

그리고 우리의 걸음이  
창조세계를 돌보는 당신의 계획의 일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기후정의와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게 도와소서.  
(Christian Concern for One World/Pray&Fast)

## 39. 유목민들에 대한 압력

아프리카에 있는 2억 5천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기후 변화 때문에 기본적인 필요인 충분한 물을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점점 더 높아지는 기온과 변덕스럽게 내리는 비로 많은 사람들이 예상치 못한 사건과 위험에 훨씬 더 많이 취약해질 것입니다.

변화하는 기후는 물로 인한 고통, 곡물 생산의 감소, 토양의 악화를 초래하고, 산불의 위험을 증가시킬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뿔(소말리아 반도 - 소말리아, 소말릴란드,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 지부티) 지역에는 예컨대, 생계를 위해 목초지와 물을 찾아 이주해야 하는 2천만 명의 유목민들이 있습니다. 지난 십 년 혹은 그 이상의 기간 동안 가축을 돌보고 생산해온 그들의 능력은 계속 영향을 받아 왔습니다. 심각한 식량 부족으로 이어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지역으로 이주해야 하거나 도시로 떠돌아다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유목민들을 위한 지원이 그들로 하여금 조기 - 경고 체계를 발전시키고 수의학 서비스를 개선하며 그리고 유목민들과 그들의 특별한 필요를 위해 그들의 정부가 도움을 주도록 압력을 넣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 40. 쇼는 끝났습니다. - 그레타 툰베리

기후를 위한 첫 학교 파업 후 150주가 지나고, 그레타는 권력층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그녀의 절망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성찰하였습니다.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기후 및 생태 위기에 점점 더 많이 깨어나게 되면서, 권력층에 있는 사람들도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권력자들은 기후행동 하듯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마치 역할놀이 하듯 행동합니다. 정치 역할을 하고, 말장난 하듯 우리의 미래를 가지고 논합니다. 책임을 떠맡는 척하지만, 그것은 정치로 위장된 소통의 전술일 뿐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행동과 말 사이의 간극은 이제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날씨는 점점 더 극단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고, 사람들은 보다 많은 이들과 함께하기 위해서라도 천천히 갈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만약 그들이 이 위기를 위기로 여기고 있지 않다면, 어떻게 그들을 데리고 가시겠습니까?

기후 위기는 오늘날 기껏해야 녹색 일자리, 새로운 녹색 사업 및 기술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 기회로만 취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위기로 취급하지 않고 우리가

그 규모를 이해하지 못하는 위기를 해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관객들은 지쳐갑니다. 쇼는 끝났습니다."

#### 41. 다양성과 결말

창조의 아버지, 은혜의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을 선물로 주심에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아름다움과 생명과 사랑의 선물에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창조의 아버지, 은혜의 하나님  
우리는 창조세계 안에서 발견되는 놀라운 다양성으로 인해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산과 시내, 그리고 계절의 변화,  
당신은 그것이 좋다고 선언하셨고,  
그것은 좋습니다.  
그것은 아름답습니다.

우리는 경이로운 신비함을 볼 수 있는  
우리의 능력에 대해 감사합니다.  
당신은 그것을 좋다고 선언하셨고,  
그것은 좋습니다.  
그것은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원사 역할을 하는 대신 에덴동산을 약탈했습니다.  
우리는 종말과 소멸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을 남용했습니다.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하는 현실을 분별하고 진실을 말할 수 있도록  
시적이고 예언적인 소명으로 우리를 새롭게 부르십시오.

창조의 주, 은혜의 하나님.



우리를 깨우시고 새롭게 하소서. 위험에 처한 세상에서,  
우리가 당신의 손과 발이 되겠습니다.  
아멘 (존 스웨일 목사)

#### 42. 미래에 대해 신실하기

“그리스도인의 의무는 그리스도의 지체들... 즉 지금 당신과 함께 있는 사람이나 우연히 함께 있는 사람들뿐 아니라 친구들, 그리고 이방인들 모두가 그들의 자리를 갖게 될 미래 공동체에 대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환경에 대해 열정적이면서도 희생적으로 관심 가져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미래를 볼 수 없을지라도, 전체 창조세계와의 조화와 화해를 위해 충실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미래를 위해 충실하지 않는 것은 오늘 우리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의 세계를 괴롭히는, 가장 조잡하고 골치 아픈 형태들 불의의 하나입니다. (캔터베리 전 대주교 로완 윌리엄스, St Alban 축일 강론)

#### 43. 비상사태에 응답하기

우리는 우리의 현재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비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 도전에 직면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상황이 우리가 통제할 수 없고 해결하기가 너무 어렵고 싸우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말하는 것처럼 무력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비상사태에 따른 긍정적인 모델이 있습니다. 내 머리에 떠오른 한 가지는 비행기 조종사 ‘Sully’ 설렌버그와 그의 팀입니다. 설렌버그는 고장 나서 엔진이 작동하지 않는 제트기를 인명 피해 없이 허드슨 강에 착륙시켰습니다. 엔진 고장 후 파괴되기까지 단지 4분이 남은 거의 희망이 없어 보이는 위기 상황에서, 그는 수십 년의 경험, 그 자신의 용기와 기술, 그s 명령이 무엇을 하게 될지에 대한 지식은 물론 잘 훈련된 팀을 잘 활용했습니다. 설렌버그와 그의 동료 조종사, 경로에 있는 이들에게 경고를 보낸 항공교통 관제사들, 승객의 대피를 도운 승무원들, 승객 대피를 도운 승무원들, 승객을 구조한 페리호 및 보트 승무원들, 승객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보고, 그것을 행했습니다.

우리에게도 비상사태 선언은 분노나 공포, 공황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위기의 선언은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도구는 무엇인지, 어떤 변화들을 일으켜야 하는지에 대한 집중적이고 현실적인 접근에 관한 부분입니다. 소규모로 구현하

되, 동시에 대규모로 구현해가는 것을 함께 해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비행기 재해 때와는 달리, 우리는 시간이 있다는 점에서 운이 좋습니다. 초점을 잃을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충분히 짧고, 이미 사용가능한 지혜와 정보, 그리고 전문지식을 끌어낼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는 몇 가지 특별한 도구를 쓸 수 있습니다. 모든 창조세계의 내재된 가치를 보게 하는 세계관, 기후 정의를 실현해가는 이웃 사랑으로의 부르심,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유지하시며 우리의 희망의 원천이신 단 하나뿐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우리 논의의 테이블로 가져옵시다.

이것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긴급 상황에 대응하여 행동하게 하는 영감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지구와 지구의 많은 공동체들을 진정으로 보호되는 방식으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특징인 사랑, 정의, 자비가 반영하는 방식으로 그러한 행동이 취해지게 하는 지혜를 간구합니다. (머랜다 聖 존 니콜 /CCOW)

#### 44. 이사야 58:6-7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 멍에의 줄을 끌러 주는 것, 압제 받는 사람들을 놓아 주는 것, 모든 멍에를 꺾어 버리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니냐? 또한 굶주린 사람에게 너의 양식을 나누어 주는 것, 떠도는 불쌍한 사람을 집에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겠느냐? 헐벗은 사람을 보았을 때에 그에게 옷을 입혀 주는 것, 너의 골육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 45.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 셋째 목표 - 재정을 움직이라

앞의 두 가지 목표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선진국은 2020년까지 연간 최소 1000억 달러의 기후금융을 동원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해야 합니다.

국제 금융기관이 제 역할을 해야 하며, 전 지구적 탄소중립을 이루기 위해 요구되는 수조 달러의 민간 및 공공 부문 금융을 활용하기 위한 작업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COP26 기간 동안 더 부유한 국가에서 대규모 돌파구를 마련하여 빈곤 국가가 적응 및 완화 프로그램을 동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정을 제공하기를 기도합니다

다. 이러한 돌파구는 코비드-19가 막대한 경제적 영향을 일으켰기에 훨씬 더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없이는 우리의 모든 미래, 특히 가난한 나라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미래가 위태롭습니다.

#### 46. 나무의 가치

“땅과 사람의 가장 좋은 친구는 나무입니다. 나무를 정중하고 경제적으로 사용할 때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큰 자원 중의 하나를 얻게 됩니다.”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Frank Lloyd Wright)의 말입니다.

전 세계 정부가 기존 삼림 보호 구역을 보호하고, 특히 주변 토지에 새로운 삼림 지역을 건설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전 세계 산림에 대한 책임 있는 관리를 촉진하고, 목재 보호 구역의 불법적인 착취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를 확립하는 국제삼림관리협의회 (FSC)의 활동에 대해 감사드리십시오.

우리가 개인들로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도 성찰해 보십시오. - 가정과 정원에서 FSC 인증 제품만을 사용하고, 우리 이웃에서 직접 나무를 가꾸고 심거나, 다른 곳에서 그러한 일을 지원하는 등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 47. 가장 위협적인 안보 위기

최근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데이빗 아텐보로는 연설을 통해 안보의 개념을 재정립하면서, 현재 세계가 전례 없는 새로운 유형의 안보 위협에 직면해 있는데, 그 위협은 우리를 분열시키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세계 어느 지역에서 왔든지 하나로 묶여야 하는 것은, 지금의 위협이 우리 모두에게 닥친 위협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기후변화와 환경을 악화시키는 현재의 길을 계속 간다면, 식량 생산, 담수에 대한 접근성, 거주 가능한 주변 온도, 해양 먹이 사슬 등 우리에게 안보를 보장하는 모든 것이 붕괴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연 세계가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필요를 더 이상 지원할 수 없다면, 나머지 문명의 대부분도 빠르게 무너질 것입니다. 제발, 실수하지 마십시오, 기후 변화는 현대인이 직면한 안보에 대한 가장 큰 위협입니다”

아텐보로는 또한 다음과 같은 행동도 촉구했습니다. : “지난 10,000년 동안 우리를 번성할 수 있게 해 준 안정적이고 온화한 기후로 결코 돌아갈 수는 없지만, 충분히 빠르게 행동한다면 새로운 안정적인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올해 11월에 글래스고우에서 열리는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는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만약 우리가 기후변화와 자연의 훼손을, 전 세계적인 안보 위협들로 인식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적절하게 그리고 제 때에 행동할 수 있습니다. ... 그리고 전 지구적인 협력을 통해 기후변화를 대처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달성할 수도 있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자원이 있는 안정적이고 건강한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원이 동등하게 공유되고, 우리가 나머지 자연 세계와 균형을 이루며 번성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안전하다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를 알게 될지도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 특히 세계의 지도자들이 기후 변화가 모든 인류의 안보에 대해 제기하는 위협을 인식하고, 더 친환경적이고 협력적이며 안정적이고 안전한 세상에 대한 비전을 품고 힘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48. 시편 96:11-13

“하늘은 즐거워하고, 땅은 기뻐 외치며,  
바다와 거기에 가득 찬 것들도  
다 크게 외쳐라.  
들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도  
다 기뻐하며 뛰어라.  
그러면 숲 속의 나무들도 모두  
즐거이 노래할 것이다.  
주님이 오실 것이니,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니  
숲 속의 나무들도  
주님 앞에서 즐거이 노래할 것이다.  
주님은 정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며,  
진리로 못 백성을 판결하실 것이다.“

## 49. 빌 맥키븐으로부터의 인용

미국의 환경운동가이자이며 350.org의 창립자인 빌 맥키븐은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나는 낙관론이든 비관론이든 어느 것도 지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공할 가능성은 정말로 크지 않지만, 나는 매일 이렇게 말하면서 일어납니다.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바꾸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그것은 우리가 해야 할 과제입니다. 우리는가 지구 온난화를 멈추지는 못하겠지만, 온난화에 대처할 수 있는 정도로 지구 온난화를 늦추는 것은 여전히 가능성의 영역 안에 남아 있습니다.

“재미있다”라는 말은 그다지 어울리는 말은 아니지만, 무언가 시도하는 것은 깊은 만족감을 줄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까지 우리가 참여해야 하는 가장 큰 도전입니다. 참여하는 것이 기쁘고, 큰 . 중대한 무언가를 행하고 있음에 기쁘고 큰 영광입니다.

## 50. ‘물건’의 수명 주기

‘지속가능한 에너지, Sustainable Energy - without the hot air’ 라는 책의 저자인 데이빗 맥케이는 안타깝게도 너무도 일찍 세상을 떠났는데, 자신의 책을 “20억 년 동안 축적된 에너지 매장량의 혜택을 누리지 못할 사람들에게” 바쳤습니다.

그 책에서 그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소위 ‘발전된’ 세계에서 에너지의 주요 흡수원 중 하나는 물건을 만드는 것입니다. 물건의 자연적인 수명 주기에서, 물건은 세 단계를 거칩니다. 먼저 새로 태어난 물건은 상점의 선반 위에서 반짝이는 포장에 감싸여 전시됩니다. 이 단계에서 물건은 ‘상품’이라 불립니다. 사람들은 이 물건을 집으로 가져가서 포장을 벗기는 순간, 그것은 ‘상품’에서 두 번째 형태인 잡동사니로 변형됩니다.

잡동사니는 몇 달 혹은 몇 년 동안 그 소유자와 함께 삽니다. 이 기간 동안, 소유자는 그 잡동사니를 소중히 여기기보다는 더 많은 상품들을 사느라고 상점에 나가고, 그 잡동사니는 무시합니다.

마침내 현대 연금술의 기적에 의해, 그 잡동사니는 마지막 형태인 쓰레기로 변형됩니다. 훈련되지 않은 사람의 눈에는 이 쓰레기와 그것의 이전 형태였던 매우 갖고 싶었던 ‘상품’을 구분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단계에서, 분별력 있는 소유자는 그 물건을 치워 버리기 위해 청소부에게 돈을 지불합니다.“

### 51. 함께 일하는 그리스도인들

영국과 아일랜드의 ‘함께하는 교회의 환경문제네트워크’(Environmental Issues Network of Churches Together in Britain and Ireland)는 모든 주요한 교단과 기독교 환경단체의 대표들을 한 자리에 모았습니다. 그들은 최대 효과를 보장하기 위해 활동과 기회를 조정하고, 영국의 기후연합과 협력하여 일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소중한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기 위해 하나의 강력하고 단합된 목소리로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우리는 기독교단체가 대중의 상상력을 사로잡을 도전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는 자원과 동기를 갖기를 기도합니다. 이 거대한 이슈에 응답함에 있어서 모든 교회 교단들과 단체들 간에 협력과 연대가 이루어지도록 또한 기도해 주십시오.

### 52. 시편 19:1-4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창공은 그의 솜씨를 알려 준다.  
낮은 낮에게 그의 말씀을 전해 주고,  
밤은 밤에게 그의 지식을 알려 준다.  
그 이야기 그 말소리,  
비록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그 소리 온 누리에 울려 퍼지고,  
그 말씀 세상 끝까지 번져 간다.“

### 53. 멸종의 새로운 시대로 진입

미국의 3개 대학에서 실시한 연구에 의하면, 인류는 서식지 손실, 산림벌채 오염 그리고 기후 변화라는 “독성의 혼합물”을 만들어냈습니다. 1900년 이래로 400개 이상의 척추동물이 사라져 왔습니다. 이러한 손실은 정상적으로는 1만년까지도 걸리는 일이었다고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종의 멸종 속도가 100배 넘게 빨라졌습니다. 그것은 6500만 년 전 공룡의 대량 멸종 이래로 가장 큰 종의 멸종이라고 말합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폴 에를리히 교수는 이렇게 논평합니다. “우리가 지금 여섯 번째 거대한 대량 멸종의 시대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연구결과는 이를 의심할 여지도 없이 분명히 보여줍니다. 우리는 우리가 앉아 있는 팔다리를 절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피조물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에게 소중하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자원을 사용하는 우리의 태도가 겸손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종의 지속적인 멸종과 손실을 줄이기 위해, 이 연구결과에 대한 강력한 응답을 갈망합니다.

#### 54. 순환 경제 구축

엘렌 맥아더 재단(Ellen MacArthur Foundation)은 유명한 여성 요트조종자에 의해 2010년에 창립되었습니다. 재단은 우리의 기존 글로벌 선형 경제에 도전하는 개념인 ‘순환 경제’를 옹호합니다.

현재 우리는 원자재를 가져와 제품을 만든 다음 폐기합니다. 아마도 사용한 것의 일부를 재활용하려고 할 것입니다. 유한한 세계에서는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순환 경제는 자연이 순환 과정에서 재료를 재사용하는 것처럼 재사용할 제품과 서비스를 설계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용 자동차는 많은 시간 동안 운행되지 않은 상태로 있다가, 새 모델로 교체되도록 만들어집니다. 단순히 차량 이용료를 지불하고 더 적은 수의 차량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회사에서 차량을 교체하지 않고 업데이트하도록 설계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현재 500개 이상의 회사들이 엘렌 맥아더 재단을 지지하는 서명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이 계속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그것이 젊은이들에게 자신들의 창조성과 지식을 사용하도록 영감을 주는 기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 55. 가볍게 걷기 - 린다 존스

창조주 하나님이며,  
나뭇잎, 꽃잎, 곡식 낱알 하나하나, 사람들 하나하나가  
당신을 찬양합니다,

사랑의 영이시여,

땅의 모든 피조물, 모든 산과 큰 바다가  
당신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우리의 탐욕이 당신의 영광을 빼앗았고  
약탈했습니다.

당신의 선물을 받고 나누지 않고,  
손님이 아니라 땅의 주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빙하가 깨어지고, 강이 마르고  
계곡은 범람하고 눈이 녹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당신이 만드신 모든 것을 존중하고  
사랑하면서 부드럽게 걷는 법,  
단순하게 사는 법, 가볍게 걷는 법을 보여 주시옵소서.  
아멘 (린다 존스, CAFOD)

## 56. 희망과 환경

“견고한 희망은... 궁극적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신뢰하게 하고, 현실을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벌어지는 일들 속에서 희망 가득한 삶을 살아내게 하는 그리스도인의 희망입니다.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힘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죽음에서 살아나게 하시는 부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견고한 희망은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이해 안에서 이 땅에 드러납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전체 우주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에서 살고 고통 받고 죽으신 후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것은 모든 피조물이 해방을 기다리며 신음할 때에(로마서 8:18-25), 피조물을 붙드시고 존속하게 하시는(골로새서 1:17)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근거합니다. 견고한 희망은 하늘과 땅이 새로워지고 회복되는(요한계시록 21-22) 궁극적 희망에 대한 확실한 이해를 갖습니다.

견고한 희망은 우리 안에서 궁극적 희망을 현실적이고 가시적인 방식으로 보이게 만



듭니다. 그것은 인내의 희망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더 고통스러워질수록, 더 확고한 희망이 보이게 됩니다... 우리는 제자로서, 고통을 겪고, 인내하고, 인격을 얻고, 희망을 발견하도록 세상 안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신학자 마곳 호드슨의 *희망과 환경*에 대한 서문)

#### 57. 테레사 수녀의 지혜

테레사 수녀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우리 모두가 위대한 일을 할 수는 없지만, 큰 사랑으로 작은 일들은 모두 할 수 있습니다.”

주님,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위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설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소서. 불황, 빛, 그리고 절망에 빠져있는, 우리의 친구들, 이웃들 그리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해주소서.

주님, 우리는 세상에서 가난과 식량의 부족으로 힘겨워하는 사람들, 교육과 건강, 의료체계 없이 살며 재난과 착취에 취약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를 하나의 백성으로서 연민민의 마음과 연대감으로 더 하여 주소서.

우리의 마음이 사랑하도록, 우리의 손이 섬기도록, 그리고 우리의 입이 불의에 대항하여 말하도록 준비시켜 주소서. - 이것이 위대한 사랑으로서 하는 단순한 행동들입니다.

#### 58. Greta Thunberg의 2019년 영국 의회 연설에서 발췌

“기후 붕괴를 피하려는 것은 대성당 사고와도 같습니다. 우리는 천장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를 정확히 알지 못할 때에 기초를 다시 놓아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단순하게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무언가 이루기로 결정하는 순간, 우리는 어떤 일이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긴급 상황에 처한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기후 및 생태 파국을 피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인간은 적응력이 매우 뛰어납니다. : 우리는 여전히 이것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는 오래가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더 이상의 핑계를 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당신들이 만들어놓은 사회에서 정치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며 말하는 것을 듣기만 하는 방식으로 교육받으며 어린

시절을 희생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이 우리와 셀카를 찍기 위해 거리로 나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는 일에 정말로 감탄한다면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은 어른들을 깨우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당신들이 서로의 차이들을 제쳐 두고, 위기에 처한 것처럼 행동할 것을 기대하며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것은 우리의 희망과 꿈을 다시 되찾고 싶기 때문입니다.“

#### 59. 골로새서 1:15-20 읽기

“그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만물이 그의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는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의 안에서 존속합니다. 그는 그의 몸인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는 근원이시요, 죽은 사람 가운데서 맨 먼저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살아나심은, 그가 만물 가운데서 으뜸이 되시려고 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충만함을 머물게 하시기를 기뻐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다, 기쁘게 자기와 화해시키셨습니다.”

데이브 북리스는 그의 책 *Planetwise(나의 지구를 부탁해)*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성경구절은 아늑하고 편안한 주머니 크기만한 예수에 대한 생각을 멀리 날려 버립니다. 대신에 만물의 근원이요, 만물의 유지자요, 만물의 구원자이신 주님을 이야기 하게 합니다.”

#### 60. 사랑하게 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당신의 손이 하는 일이 복됩니다.

당신의 영은 나무와 새와 파도에 영감을 주어 노래하고 춤추게 합니다.

당신의 제자와 모든 만물에 불어 넣으신 바로 그 거룩한 바람입니다.

당신의 영이 우리에게 다시 불게 하소서,

그래서 당신의 만물을 경외하는 창조적 사랑과 돌봄을 실천하게 하소서.

오 거룩한 분이시여  
당신의 손이 하는 일이 복됩니다.  
아버지, 아들, 그리고 성령이여,  
한 분 하나님, 지금과 그리고 영원히. 아멘  
(故 엘리나 와무코야 주교)

#### 61. 우리 자신에 대항하는 캠페인

쥘리 몬비외트(George Monbiot)는 그의 책 'Heat: How to Stop Planet Burning'의 끝 부분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기후변화라는 거대한 위협에 직면해있습니다. 그런데 그 충격을 줄이기 위해 운동하는 이들은 놀랍게도 소수입니다. 우리는 존재에 대한 위협에 맞서는 것보다 모든 종류의 비교적 사소한 문제에 대해 항의하도록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이 더 쉬운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 다른 경우에는 우리에게 무언가가 행해지는데, 이 경우에는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행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와 싸울 때, 우리는 부유한 세계의 석유회사, 항공사, 정부와만 싸워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 우리는 우리 자신과도 싸워야 합니다. 그것은 풍요를 위한 캠페인이 아니라 긴축을 위한 캠페인입니다. 그것은 더 많은 자유를 위한 캠페인이 아니라 더 적은 자유를 누리기 위한 캠페인입니다. 그것은 단지 다른 사람들에 대항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대항하는 캠페인입니다.

#### 62. 마가복음 4:39-41

“예수께서 깨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고요하고, 잠잠해져라’하고 말씀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고요해졌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왜들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서로 말하기를 ‘이 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할까?’하였다.”

#### 63.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26) - 넷째 목표

각 나라들은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함께 협력해야만 기후위기의 도전에 대처할 수 있

습니다.

COP 26에서 각 나라는 약속한 내용에 대해 합의된 책임있는 절차를 제공하기 위해 파리기후변화협약을 완성해야 합니다. 또한 나라들은 정부, 기업 그리고 시민사회 간의 협력을 통하여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가속화하는 방법에 대해 합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거대하고 필수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신뢰의 관계가 이번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총회 안에서 구축되기를 기도합니다.

#### 64. 숲 교회

숲 교회는 하나님과 관계 맺는 새로운 방식을 제공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두 번째 책’인 창조 세계를 읽음으로써, 하나님에 대해 배워야 할 것을 배우고 그것에 열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연을 통해 전하기 원하시는 것에 우리 자신을 개방하는 것은, 탐험해볼만한, 새롭고 흥분된 길이며, 모든 연령대를 끌어 들일 수 있습니다.

숲 교회는 신성한 장소와 오랜 관습과 전통이 이어져온 야생의 장소에서 자연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이점을 강조하는 현대 연구를 활용합니다. 그것이 제안하는 흥미로운 생각 중 하나는 거룩한 감각(센시오 디비나, Sensio Divina)입니다. 이는 수도원 짜도의 초기 시대부터 있어온 것으로, 이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짧은 성경구절과 함께 앉아서 그것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말하고 머물게 하는 행위입니다. 마치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를 하듯 창조세계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말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숲 교회와 같이 앞서가는 이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스런 창조세계와 우리와의 관계를 재발견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65. 평화를 위한 기도

오, 모든 생명을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  
땅과 바다와 하늘이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은 우리 옆에, 우리 둘러싸고 계십니다.

모든 원자는 당신의 에너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당신의 영은 땅을 걷는 모든 사람을 소생시킵니다.  
 그들과 함께, 우리는 정의가 실현되기를 갈망합니다.  
 창조세계가 속박으로부터 해방되기를,  
 굶주린 자들이 배불리 먹기를,  
 사로잡힌 자들이 풀려나기를,  
 당신의 평화의 나라가 이 땅위에 오기를 갈망합니다.  
 (R. 크로프트 그리고 J 레인스미스)

## 66. 자연을 위한 유엔 협정

자연을 보호하기 위한 합의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2030년 사이에 전 세계의 정부와 사람들이 “지구와 인류의 이익을 위해 생물다양성을 회복하는 길을 가기 위해 사회 전반에 걸쳐 긴급조치를 취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50년까지 사람들이 “자연과 조화롭게 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보호지역 조성, 공해 저감, 도심 녹지 조성 등 녹색 공간을 만드는 것은 주요 목표인데, 매우 필요로 한 계획입니다. 과학자들은 인간이 지구의 역사에서 **여섯 번째의 대량 멸종 사건**을 일으키고 있다고 경고하며, 행동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 짧게 남아 있다고 주의를 줍니다. 생물다양성에 대한 유엔협약의 사무국장인 **엘리자벳 마루마 프레마**는 협상자들에게 담대할 것을 요청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아이들과 젊은이들에게 실패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라보는 바다는 플라스틱으로 가득하고, 그들이 보는 숲은 벌거벗은 땅이 되어가며, 소비패턴은 더 많은 오염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프레마는 말합니다. “만약 각국의 정부들이 충분한 행동을 취하는 데에 합의하지 않는다면, 그 위험들은 더 심각해질 것이고, 우리는 지구를 구하는 국제사회 공동체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주님, 당신의 창조물은 숨이 멎을 정도로 복잡하고 미묘하게 짜여있어 경이롭습니다. 우리는 이 지구를 적절하게 돌보는 데 실패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자연 보존을 위해 자신의 역할을 다 하는 평범한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그리고 자연보호에 대한 합의를 확보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올해만큼은 기대에 부응할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는 프레마가 앞으로 더 나아갈 때 지혜와 인내, 힘이 더하여지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 67. 성 프란치스코의 예

우리는 당신의 창조물과 당신의 모든 피조물을 사랑했던, 당신의 신실한 종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를 기억합니다.

우리는 성 프란치스코의 모범적 삶에 감사합니다. 그의 온유함, 청빈의 서약, 하나님께 대한 순종,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에 대한 단순하고 깊은 사랑은, 하늘의 완전함의 깊이를 바라보도록 이끌었고,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마음을 돌이키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곤란에 처한 세상에서 평화와 인도하심을 구하며, 여기에 와 있습니다. 성 프란치스코의 모범과 모든 창조물에 대한 그의 사랑이 우리에게 영감을 주기를 기도합니다.

### 68. 그린란드의 녹아내리는 빙하에 대한 경보

오하이오 주립대학의 과학자들은 수십 년 동안 그린란드에 있는 200개 이상의 빙하를 연구해왔습니다. 그들은 그린란드의 빙하(지대)판이 이제 되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넘어 녹았을 수 있으며, 세계가 기후 온난화를 초래하는 탄소배출을 줄이더라도 빙하 얼음이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연간 강설량은 더 이상 빙하의 눈과 얼음을 대체할 만큼 충분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린란드의 빙하가 녹으면, 녹아 나온 물은 해수면을 평균 6미터 높일 것이고, 이는 전 세계의 많은 해안 도시를 덮쳐 잠기게 할 만큼 충분합니다. 과학자들은 빙하 안에 잠겨 있는 물의 양을 감안할 때 그린란드의 운명에 대해 오랫동안 걱정해 왔습니다.

빙하학자인 이안 호와트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린란드는 “탄광 안의 카나리아가 될 것이며, 카나리아는 이 시점에서 이미 거의 죽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북극은 30년 동안 다른 지역보다 최소 두 배나 빠른 속도로 온난화가 진행되었으며, 극 지방의 해빙은 40년 만에 7월에 가장 낮은 온도를 기록했습니다.

과학자들이 절망하는 것은 이처럼 대단히 걱정스런 연구결과에 대해 정부의 행동이 부재하다는 것입니다.

### 69. 학개 1:2-9

만군의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백성이 말하기를 ‘때가 되지 않았다. 주의 성전을 지을 때가 되지 않았다’고 한다.

학개 예언자가 주의 말씀을 받아 전한다.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지금이 너희만 잘 꾸민 집에 살고 있을 때란 말이나?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살아온 지난날을 곰곰이 돌이켜 보아라.

너희는 씨앗을 많이 뿌려도 얼마 거두지 못했으며,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셔도 만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듯하지 못하며, 품꾼이 품삯을 받아도, 구멍 난 주머니에 돈을 넣음이 되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각자의 소행을 살펴보아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을 지어라.

그러면 내가 그 성전을 기쁘게 여기고, 거기에서 내 영광을 드러내겠다.

나 주가 말한다. 너희가 많이 거두기를 바랐으나 얼마 거두지 못했고

너희가 집으로 거두어 들였으나 내가 그것을 흠어 버렸다.

그 까닭이 무엇이나?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나의 집은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너희는 저마다 제집 일에만 바쁘기 때문이다.

## 70. 공동의 집의 창조주

우리 공동의 집의 창조주시여,

땅과 바다와 하늘을 생명으로 채우시니,

당신의 창조물에 대한 우리의 소홀함을 용서하소서.

세상을 오염시키며 우리를 질식시키는 쓰레기들,

부주의한 습관으로 입힌 피해들,

그리고 미래세대에 대한 우리의 무관심을 용서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고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만약 우리가 플라스틱을 재사용할 수 없다면,

플라스틱을 더 많이 거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변화를 위한 우리의 목소리를 높일 수 있도록,

이 땅 위에서 착하고 부드럽게 살 수 있도록,

깨어지기 쉬운 이토록 약한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

살아계신 말씀이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도

우소서.

아멘. (옥스포드의 주교, 스티븐 크로프트 목사)

## 71. 열대우림의 가치

열대우림 지역은 생물다양성의 놀라운 원천입니다. 열대우림 지역은 전체 지구의 대략 2%에 해당하지만, 그것은 세계의 살아 있는 식물과 동물의 절반이 넘는 종들의 집입니다.

열대우림 지역들은 과학자들에 의해 아직 확인되지 않은 수천 가지 생물종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열대우림은 목재와 광물들의 풍부한 원천입니다. 불행히도 많은 나라들에서 열대우림은 농업, 특히 목장 조성과 콩 경작, 그리고 인간 정착지를 위해서 파괴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 해 동안에만 1200만 헥타르(ha)의 열대우림이 삼림 벌채로 인해 유실됐습니다. 이는 1분마다 축구장 30개 면적에 달하는 숲이 사라진 것입니다.

열대우림은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합니다. 그래서 대기 중에 있는 온실가스의 농도가 낮아집니다. 이 열대우림은 또한 발산 작용을 통하여 습기를 대기 중으로 내보냅니다. 이것이 지역의 기온을 낮춰주고, 비를 내리게 하며 따라서 지구 온난화를 낮추는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생물다양성을 보존하고 흙을 보호하며, 우림 지역과 나무의 가치를 사람들에게 더 널리 이해시킴으로 기후변화의 영향을 줄이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또한 모든 나라들의 다양한 배경을 지닌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세계의 귀중한 부분들을 지키기 위해 함께 일할 것을 기도합니다.

## 72. 이사야 66:1-2 읽기

주께서 말씀하신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 받침대다. 그러니 너희가 어떻게 내가 살 집을 짓겠으며, 어느 곳에도가 나를 쉬게 하겠느냐?” 주님의 말씀이다.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며, 이 모든 것이 나의 것이다. 겸손한 사람, 회개하는 사람, 나를 경외하고 복종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을 내가 좋아한다.”



73. 'PlanetWise, 나의 지구를 부탁해'으로부터의 발췌

데이브 북리스는 그의 책 'PlanetWise, 나의 지구를 부탁해'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

“낭비를 줄이는 면에서, 내가 취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아마도 쓰레기통에 무엇인가를 넣을 때마다 기도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나는 그 물건을 만든 천연자원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좋은 청지기였는지에 대해 반성합니다. 내 부주의한 낭비를 다시 인정해야 하기 때문에, 내 기도는 죄책감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이것을 살 필요가 있었을까? 나는 이 모든 포장과 함께 물건이 필요했던 걸까?

때때로 하는 내 고뇌는 개인적인 것이 아닙니다. 폴리스티렌과 플라스틱으로 덮이지 않은 물건을 살 수 없다고 명령하는 문화에 대해 좌절합니다. 그러면서도 주어진 것이 당연한 것이라 생각하며 경쟁적으로 소비하고 있음을 하나님께 죄송할 뿐입니다.

“낭비를 영적인 문제로 보는 것은 이 과정의 시작에 서게 합니다. 맨 처음 물건을 살 때에, 아니 어떤 물건이든 사기 전에, 그것이 정말 필요한지 항상 물어봅니다”

74. 방글라데시에서의 준비

지대가 낮은 방글라데시는 상승하는 해수면에 의해 심각하게 영향 받을 가능성이 있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적응을 돕기 위한 재정 지원이 절실합니다. 그러나 방글라데시 사람들은 앉아서 도움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행동하며 국가 적응 프로그램을 설정했습니다. 가장 가난한 지역들에서도, 방글라데시 사람들은 제방과 둑을 세우고 그들의 농업 방식을 바꾸면서 다른 나라와 지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열대성 저기압인 사이클론에 대한 조기 경보 체계도 갖춰가고 있습니다.

수상 정원은 방글라데시에서 처음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수초들은 토양과 작물의 얇은 층을 위한 기반을 제공합니다. 이 수상 정원은 만드는 비용도 거의 들지 않으며 홍수가 나도 문제가 없습니다.

지역사회 개발과 재난 대비에 대한 광범위한 훈련을 제공하는 HEED 방글라데시 (1974년 설립된 이래로 소외된 사람들의 삶을 지원하는 방글라데시 최대 규모의 개발 단체 중 하나)의 활동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 75. 벌들에 대한 우려

꿀벌들은 많은 식량 작물에 수분을 제공하기에 인간의 삶과 생존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영국의 꿀벌 수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꿀벌은 지난 60년 동안 자연 서식지의 많은 부분을 잃어버렸고, 많은 과학자들은 특정 종류의 살충제 곧 네오니코티노이드(neonicotinoid)가 주요한 위협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땅벌도 좋은 수분 매개체이지만, 산울타리, 꽃이 만발한 초원, 연못, 습지 및 산림지대가 파괴되면서 그 수 또한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더 많은 야생동물 친화적인 정원을 만들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Apimondia(벌 지킴이 연합 국제 연맹), 벌 보존 연맹, 지구의 친구의 활동을 통해, 벌들의 감소가 멈추기를 기도합니다. 정원사와 공공 토지 및 교회 마당을 책임지고 있는 이들이 꿀을 생산하는 식물을 장려하고 살충제를 줄이고 더 많은 야생화를 심게 되길 기도합니다.**

## 76. 단순하게 살기 - 린다 존스의 기도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당신은 우리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름답고 풍성한 세상에서,  
단순하게 살고자 하는 갈망을 우리 안에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이 당신의 관대함을 드러낼 수 있게 도우소서.

창조주 하나님,  
당신은 우리에게 지구에 대한 책임을 주셨습니다.  
풍성함과 기쁨의 세상에서,  
지속가능하게 살고자 하는 갈망을 우리 안에 주시고,  
우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당신의 창조의 열매들을 즐기고 누릴 수 있게 도우소서.

평화와 정의의 하나님,  
당신은 우리에게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당신의 지혜를 비추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서로 연대하여 행동하려는 마음을 우리 안에 창조하시어,  
불의의 기둥들이 무너지고,  
지금 짓밟히고 있는 이들이 자유를 얻게 되길 기도합니다. (린다 존스 / CAFOD)

77. 시편 104:24, 31, 33-34

주님, 주께서 손수 만드신 것이, 어찌 이리도 많습니까? 이 모든 것을 주께서 지혜로 만드셨으니, 땅에는 주님이 지으신 것으로 가득합니다.  
주의 영광은 영원하다. 주님은 친히 행하신 일로 기뻐하신다.

내가 살아 있는 동안, 나는 주님을 노래할 것이다.  
숨을 거두는 그 때까지 시를 읊어서 하나님을 노래할 것이다.  
내 기도를 주님이 기꺼이 받아 주시면 좋으련만!  
그러면 나는 주의 품 안에서 즐겁기만 할 것이다.

78. 생태용량 초과 날

Global Footprint Network(세계 생태발자국 네트워크)에 따르면, 올해의 '생태용량 초과 날'은 7월 29일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1월 1일부터 7월 29일까지 자연에 대한 인류의 요구들이 지구가 올해 재생할 수 있는 모든 자원들을 다 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태용량 초과 날'로부터 계속해서 우리는 자연의 한계들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도한 사용은 우리의 미래를 위태롭게 합니다. 우리가 공유하는 천연자원은 지구의 균형 잡힌 삶을 지속하는 데 필수적이므로 식물과 동물들이 안전하게 번식하고, 앞으로 몇 년 동안 재생산하고 비축할 수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인류 전체는 지구 1.5개의 행성에 해당하는 재생 가능한 자원들을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재정적으로는 '우리의 재산 안에서' 살아야 한다는 걸 알면서, 생태적으로도 그래야 한다는 것은 잘 알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재산 안에서' 더 잘 살 수 있을지에 대한 인식이 더 높아지기를 기도합니다.

79. 빨리 변화하는 태피스트리(tapestry)

창조주 하나님,  
당신의 손가락으로 엮어 만드신 창조세계가 참으로 복잡하고 오묘합니다. 당신이 날마다 보여주시는 창조의 능력에 기뻐하며 즐깁니다.  
그런데 이토록 촘촘하게 짜여 있는 세계가 참으로 깨지기 쉽고 너무도 빨리 변화합니다. 과학자들은 우리가 이미 감지하고 있던 것들을 명확한 사실로 밝혀냈습니다.

우리는 두렵습니다. 우리가 반복되어오던 패턴을 잃어버린 계절을 두렵고, 기후 변화가 가져오고 있는, 모든 불확실성 또한 두렵습니다.

정치가들은 각자 자국의 이익을 우선하느라 몸을 굽히는데, 그러는 동안 온실 가스는 쌓여가고, 바다는 산성화되며, 대기의 흐름은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의 응답이 부족한 것을 용서하소서. 이 위기가 너무도 거대하여서 오히려 행동하지 못하겠다고 핑계를 대는 것을 용서하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당신의 성령께서 우리의 정치인, 지도자 그리고 협상가에게 지혜와 영감, 결단력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 모두가, 세상 사람들이 더 푸르고 지속 가능한 세상을 살며 희망하는 대로 만들어가기 위해 필요로 하는 결정을, 어려움 없이 합의하고 이행해갈 수 있도록 도우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사벨 카터)

#### 80. 미가 4:1-2

그 날이 오면, 주의 성전이 서 있는 주의 산이 산들 가운데서 가장 높이 솟아서, 모든 언덕을 아래로 내려다보며, 우뚝 설 것이다.

민족들이 구름처럼 그리로 몰려올 것이다. 민족마다 오면서 이르기를 “자, 가자. 우리 모두 주의 산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어서 올라가자. 주께서 우리에게 주의 길을 가르치실 것이니, 주께서 가르치시는 길을 따르자” 할 것이다.

## \* ‘기독교환경교육센터 살림’ 소개 \*

살림은 창조신앙을 기반으로 생태리더십을 기르고, 우리가 사는 지구를 창조의 때의 생명의 공간으로 복원하고자 노력하는 환경선교 민간단체입니다. 살림은 푸르른 지구만들기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교회와 지역사회와 손잡고 교육과 워크숍 및 환경선교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녹색교회’ 의제를 만들고, ‘교회녹화’, ‘교회절전소’, ‘생명밥상’, ‘초록가게’, ‘주말생태교실’ 등의 시범사업과 ‘생태적 삶 훈련’과 ‘생활속환경교육’을 진행해온 경험이 있는 이들이 함께 모여 만들어가는 곳으로, 살림의 길에서 만나는 이마다 모두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은 하늘나라의 삶을 살기까지 힘쓰고 있습니다. 그 삶은 ‘모두가 골고루 풍성히 누리는 삶’(요10:10)입니다. 선물로 주어진 창조 세계 안에 머무는 것을 즐기되, 신음하는 생명의 소리에 예민하게 귀 기울임으로 이 땅을 지키고 돌볼 것입니다.

함께 자신의 삶은 물론 가정과 마을, 교회와 세상에서 ‘살림의 씨앗’으로 만나 싹을 틔우고, ‘살림을 위한’ ‘살림에 의한’ ‘살림을 보다 잘하기 위한’ 이야기꽃을 활짝 피워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 <주요 사업>

#### ▣ 플라스틱프리(교회 및 교회카페) 캠페인 ▣

플라스틱은 인간과 생태계를 아프게 합니다. 하나님이 손수 지으신 창조 세계를 지켜나가기 위해 일회용 플라스틱 컵, 빨대, 비닐봉투 등 쓰레기로부터 자유해가는 플라스틱프리 캠페인 및 교회 리필스케이션 등 쓰레기 제로의 일상과 교회(카페) 활동을 제안하고, 진행합니다. 생활영성훈련으로서 ‘창조세계를 위한 40일의 약속, 플라스틱 감축 생활훈련’ 실천카드와 ‘쓰레기제로 일상교육’ 교재(근간)가 나와 있습니다.

#### ▣ 경건한 40일 탄소금식 등 신앙의 절기에 맞춘 실천캠페인 ▣

매년 사순절마다 재의 수요일부터 부활절 전 40일 동안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지구에 고통을 주며 누려온 것을 고백하고 지구의 아픔을 덜어내는 거룩한 습관을 연습할 수 있도록 하루 혹은 일주일 단위 실천컨텐츠를 제공합니다. 이어지는 ‘기쁨의50일’ 동안에는 부활의 기쁨을 지구 이웃과 나누게 도우며, 9월부터의 창조절을 지켜 피조물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돕습니다. 특히 대림절에는 하나님 아에서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이 하나되어 서로의 필요를 채워감으로 보기에 참 좋은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묵상집 등을 만들어 보급하고 있습니다.

#### ▣ 환경선교사, 온라인그린스쿨, 지구돌봄서클, 생태영성훈련 등 살림아카데미 ▣

환경선교사, 생태리더십 & 생태영성 아카데미, 생태리트릿을 비롯한 생태영성 훈련, 생명 살림 온라인 그

린스쿨, 살림 치유 글쓰기(생명의 기억, 되살림의 기록) 등의 교육과 소규모 살림 커뮤니티 활동, 교회와 학교, 지역과 연합한 지역 살림 학교를 통해 살림스러운 삶을 배웁니다. 특히 '지구돌봄서클(일반/금/동물/재활용)'을 통해 서로 신뢰하고 지지하는 가운데 생명살림의 공동체를 만들어 함께 행동하게 합니다. 특별히 소모임 단위로 자발적인 교육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소통하는 교육 도구를 보급했는데, '지구돌봄서클'과 '탄소제로 녹색교회를 위한 지구정원사'를 위한 토론 톨킷이 보급된 바 있습니다.

#### ■ 녹색교회학교 워크숍 및 지구묵상주일(크리스찬어스아워, 지구를위한시간) 캠페인 ■

미래세대가 살아갈 세상에 관한 관심을 두고 교회학교 사역자들과 더불어 교회학교의 녹색화를 시도하되, 한 달에 한 번 주일에 지구묵상주일(지구를 위해 없이 지내는 주일)을 지키는 것과 지구를 위한 시간을 갖고 기도하는 신앙실천 캠페인으로 '크리스찬어스아워' 운동을 전개하면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를 위한 살림극장 기후 토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 ■ '계절에 말 걸기' & '교회숲(정원)' 조성 및 마을 생태환경교육 ■

계절에 한 번씩 계절에 말을 거는 시간을 갖습니다. 사계절 동안 숲길, 물길, 마을 길을 거닐며 계절에 말을 걸고, 생태영성과 감수성을 회복하게 합니다. 특별히 이 일은 가정과 교회, 마을 안에 하나님의 정원을 회복하는 미니정원(텃밭, 화단, 모퉁이숲)을 만들고 연결하여 생태환경교육을 진행하는 일로도 이루어집니다.

#### ■ 모두를 위한 '환경살림나눔발전' 캠페인 ■

지구사랑의 온도 1.5도를 위한 활동을 통해 모두가 조금씩 적은 돈을 모아 모두의 공간에 모두의 햇빛으로 발전소를 세워 기후 약자를 포함하는 모두의 필요를 채웁니다. 2020년 10월 금산간디학교에 환경살림나눔발전소를 건립하였고, 현재는 걷고 나누는 탄소사냥 활동을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도시 속초 지역 발전소 건립과 더불어, 교회와 함께 하는 '지구사랑 탄소사냥 걷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 ■ 300살림씨앗 네트워크를 위한 소규모 살림활동 지원 ■

교회와 지역사회에서 숨어서 활동하는 이들 300명을 찾아살림씨앗(EcoSalimista)으로 임명하고, 때때로 살림씨앗의 삶과 일을 지지하고자 소규모 살림활동에 대해 소액의 지원금을 전달하는 일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 ■ 발행도서 ■

- 단행본 : 생명을 살리는 교회 환경교육(도서출판 동연), 생명살림 마을교회(나눔사), 지구정원사 가치사전(도서출판 동연동연)

- 목상집 : 지구이웃과 함께 하는 40일 목상여행, 주님의 마음으로 보는 말씀목상,  
성경 속 나무로 느끼는 하나님의 현존(도서출판 동연), 창조에 관한 말씀목상(근간)

■ #환경 #해시태그 #봉사인증(1365자원봉사) 캠페인 ■

아래 해시태그와 관련된 활동을 하고,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각종 블로그에 인증샷을 남깁니다  
(살림 제공하는 콘텐츠 활동 가능 - 인스타&페북(사진 2장 이상, 50자 이상 + 필수 해시태그 3개 + 선택 해시태그 1개), 블로그(사진 2장 이하, 2페이지 이상 + 필수 해시태그 3개 + 선택 해시태그 1개))

- 필수 : #기독교환경교육센터\_살림 #살림 #탄소중립
- 선택 : #플라스틱프리 #제로웨이스트 #기후위기 #미세먼지 #비거니즘 #반려식물

봉사인증이 필요하신 분은 [ecochrist@hanmail.net](mailto:ecochrist@hanmail.net)이나 070-7756-0226으로 먼저 알리시고 하신 후 다음 설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forms.gle/mS8gzqowHBibphCp8](https://forms.gle/mS8gzqowHBibphCp8)).

하나님은 우리를 지구 동산에 두시고 ‘지키고 돌보라’(창 2:15) 하셨습니다. ‘살림’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화비로 운영됩니다. 재정 후원은 하나님이 만드신 지구와 그 안에 기대어 살아가는 생명이 골고루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다양한 활동의 중요한 밑거름입니다. 또한 살림코디네이터가 되어 기도 후원과 자료 정리 및 번역, 교육 및 실천사업에 참여하시기 원하시면 아래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주소 (031280) 서울 종로구 연지동 135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604호 기독교환경교육센터 살림  
TEL 070-7756-0226 (팩스 수신시 수동 전환 필요)  
Email [ecochrist@hanmail.net](mailto:ecochrist@hanmail.net)  
살림블로그(활동소식) <http://blog.daum.net/ecochrist>  
살림브런치(글창고) <http://blog.naver.com/ecochrist>  
살림모두홈페이지 <http://ecochrist.modoo.at>  
네이버밴드 <https://band.us/@salim>  
페이스북페이지 <http://www.facebook.com/ecochrist.salims>  
카카오톡플러스친구 [http://pf.kakao.com/\\_rmExdC](http://pf.kakao.com/_rmExdC)

살림친구(후원)되기 : <https://online.mrm.or.kr/E5CQi7a>

살림후원계좌(기부금영수증 발급)

- 국민 343601-04-121652 재)한빛누리살림

“Christian Save The Earth”

하나님 안에서 모든 생명이 아름답게 공존하기까지 교육하고 실천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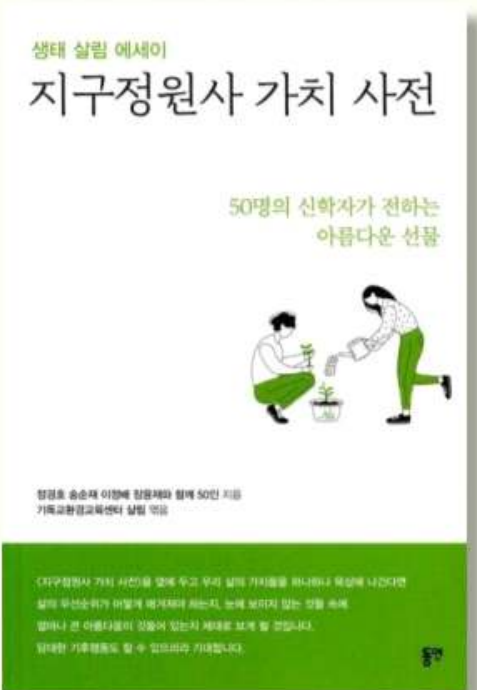
# 만원의 행복을 나눠드립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  
한 달에 만원으로 지구를 살리는 일에 동참해주세요.

**기독교환경교육센터 살림의 회원이 되어  
창조세계 보전과 실천에 함께해주세요.**

<https://online.mrm.or.kr/E5CQi7a>



후원회원으로 가입하신 분께는  
50명의 신학자의 생태 신학 에세이를 담은  
'지구정원사 가치사전(살림 엮음)과  
'살림 손십자가 목걸이' 를 드립니다.

